

다산포럼



주윤정 서울대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최근 한 20대 남성과 함께 군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군에서 전역을 한 그는 군대에서의 위계 폭력과 인권 침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성장해 선진국 시민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던 20대 청년들에게 군대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놀라운 경험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청년에게 미국군의 조직문화는 왜 달라 보였을까? 미국의 군대에는 민권법 등 평등 규범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에도 '평등한 기회' 부서가 있다. "미8군은 인종과 색깔 및 젠더 정체성을 포함한 젠더, 종교, 태어난 나라,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적 차별과 공격적 행위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민권법 7조, 직장 내 평등한 기회에 대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해석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후퇴가 있기도 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극심한 인종차별과 불평등 등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활발한 사회운동 기관으로 만들어진 민권법 및 차별금지법이 고용과 교육 영역에서 강력한 사회적 제도로 존재하기에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있다. 2021년 3월 3일 세상을 하직한 변호사 하사는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변 하사가 한국군이 아닌 미국군에서 복무를 했다면, 그는 평등 기회 부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을 것이고, 변 하사에게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지 상급자들에 대한 조사 이후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니 트랜스젠더가 4성 장군이 되기도 하는 미국군에서 변 하사는 신고할 문제가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다.

김하림의 차이나 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교수님은 친중국 입장이세요?" 강의가 끝나서 출석부와 강의 자료를 주섬주섬 챙기는데, 교탁 앞으로 다가온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었다. 2021년 1학기 '현대 중국의 이해' 과목 시간이라고 기억한다. 흑 들어온 질문이 '당황하면 안 되고, 표정도 여유롭게 약간의 미소를 띠고'라고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최상의 방어인 공격을 감행했다.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공대생인 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심화된 이후 자신의 아버지와 중국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는 경제적 측면이나 외교 국방 측면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 양국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자신은 중국이 자민족 우월 의식과 배타성이 강해 우리나라를 압박해 온다고 주장하면서 부자 간 대립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친중국 입장이세요?

들어오고 있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이후 40년 가까이 불구대전의 원수로 여기는 적대적 관계에서, 1992년 수교를 맺고 이후 '협력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승격되며 발전해 온 우호적 관계의 30년이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로 비롯된 경제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정 정서와 중국의 반한 정서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일 폐막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오히려 양국의 국민 정서는 더욱 나빠졌고,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와 정치인들이 표만 의식하며 '반중' '협중' '친중' 공방에 뛰어들어 문제가 더욱 비화하는 양상이다.

라인이나 SNS에서 직접적 충돌이 매우 많고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대중 수출이 급증했다. 2000년 대중 수출액은 18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1621억 달러, 2021년 162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2년간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이었고, 대중 무역 흑자도 2013년 62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43억 달러에 달했다. 경제적 측면 외에도 국방 외교, 남북 문제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 갈등 구조의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가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고



박영길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산불로 삼척은 251호(戶), 강릉은 127호, 양양은 38호가 연소했으며, 불에 타 죽은 자는 4명, 익사자는 5명이다"(1666년) "양양, 강릉, 삼척 등 산불로 민가 1900여 호가 전소되고, 강릉 우계(羽溪)의 창고 곡물과 군기(軍器) 등의 물건이 한꺼번에 타 버렸으며, 불에 타 죽은 사람이 65명이다"(1672년)" "삼척, 강릉, 양양, 간성, 고성에서 통천에 이르는 바닷가 여섯 고을에서 민가 2600여 호, 사찰 6곳, 창사(倉庫) 1곳, 각종 곡식 600석, 배 12척, 염분(鹽釜) 27좌(坐)가 불에 탔고 사망자는 61명이다"(1804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들 내용으로 보면 조선 시대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산불에 강한 내화수(耐火樹) 조림 확대해야

생한 기록적인 산불이었다. 2020년에는 안동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2000여 ha가 소실됐다. 소나무가 많은 동해안 지역은 양간지풍(襄杆之風: 봄철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의 동해안 지역에 부는 국지적 강풍)의 영향으로 한 번 발발되면 지역적으로 임상(林相)적으로 산불 진화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2000년 동해안 산불 진화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려 1km의 하천을 뛰어 넘어 산불이 번져 나가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산불 신고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속도보다도 빠르게 산불이 번져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산불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에서는 2019년 6개월간 지속된 산불로 야생 동물 10억 마리가 희생되고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도 1만 마리 이상 희생됐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해 1.76 Gt(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불 진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수십 m 불기둥을 만들어 타는 소나무 단순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 진화 헬기나 이상 진화 인력들의 안전에도 위협 요인이 된다. 뜨거운 기류와 연기가 발생해 헬기가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무거운 물을 싣고 가는데 양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지상 진화 인력은 산불에 휩싸이면 인명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560여ha의 산피해를 낸 경북 영덕의 산불

은 농가에서 쓰는 햇빛 반사용 필름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농산 폐기물을 태우는 등의 인위적인 원인이 대부분이다. 소나무가 많은 지역의 산불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내화수(耐火樹) 조림을 확대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초동 진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동백나무는 전라남도의 도화(道花)다.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는 잎이 두껍고 수분 함유율이 높아 산불의 진행을 최대한 더디게 하는 특징이 있어 내화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내화수림대를 갖추고 있던 고창 선운사 동백숲이 돌보이는 까닭이기도 하고, 전남의 난대 활엽수종인 동백나무 자생지 등에서 대형 산불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전남 관내에는 소나무만 단순림으로 분포된 곳도 많아 대형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숲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은 대형화와 동시 다발적인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불 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단지 조림이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찰, 민가와 밭담은 지역에 동백나무 등 상록수나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또는 고로쇠나무 등을 심어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를 만들어야 한다. 조림을 할 때에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섞어 심은 혼효림(混效林: 두 종류 이상의 수종으로 구성된 산림)을 조성해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社說

코로나에 취약한 시군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노인이나 장애인 및 이주민이 많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이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지역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충격은 큰 반면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응력은 낮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국내 시군구의 신종 감염병 취약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확산되는지(노출),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기 쉬운지(민감성),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피해의 결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됐는지(대응 역량) 등을 살펴보았다.

분노로 시작해 감동으로 끝난 베이징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첫 번째 폐막됐다. 중국의 편파 판정 등으로 인해 분노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드러미가 펼쳐져 감동으로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수확, 종합 14위로 목표였던 15위 내 진입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한복 공정, 편파 판정과 도핑 파문 등 약재도 겹치며 '눈뜨고 코 베이징' 대회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다. 한국은 대회 5일 차에 이르러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김민석의 동메달을 필두로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과 황대찬(강원도청)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남녀 계주에서도 나란히 은메달을 보냈다. 이와 함께 평창에서 빙속 매스스타트 우승을 합작한 이승훈(IHQ)과 정재원(의정부시청)이 나란히 은·동메달을 얻어 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고려

대)은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올림픽 최고 순위인 5위를 차지했다. 여자 싱글 유영과 김예림(이상 수리고)도 각각 6위와 9위를 기록하는 등 남녀부 선수 모두 톱10에 드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쇼트트랙 단체인 남녀 계주에 참가한 일부 선수를 빼낸 개인 종목에서는 새로운 메달리스트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4년간 평창의 영웅을 뛰어넘을 새로운 영웅 발굴에 실패한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움직임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선수를 키워야 할 자 중독 연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많은 연맹이 평창 올림픽 이후 공과를 놓고 내부 권력 싸움을 벌이며 선수 육성에 소홀했다. 4년 뒤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한국 동계스포츠는 상처를 치료하고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introduction tex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masthead and contact information.